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0년 12월 후원미사는 21일에 봉헌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하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20년 10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5,482,034
-------	------------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단체찬조비	베들레헴 어린이집	5,2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2,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보수공사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1,2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5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 집	1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등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등
	중국공동체	100,000	의료비 등
	인도네시아공동체	100,000	제전비 등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9,725,000		
지원비	노동사목회관	2,400,00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3,357,034	운영비(행사비, 우편비 등) 지출 및 예치
지출 총액	15,482,034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펴낸날 2020. 11. 16.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이광휘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수녀님글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들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보았습니까?'"(마태 20,37-39)

이주노동자 상담실에서는 가족과 고국을 떠나와 타국 생활을 하고 있는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들의 고충 상담 및 신앙 상담을 통해 노무, 의료, 비자, 출국, 자녀 문제, 신앙 등 다양한 문제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만나게 되는 이주민들의 한국 생활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처우가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피부색, 언어,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 경계가 존재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안에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나라에서 처음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외국인들은 불안한 눈빛과 어색한 발걸음으로 이곳을 찾습니다. 여러 매체나 동포 커뮤니티를 통해 가톨릭교회의 보편적 도움, 교황님의 이주민에 대한 각별한 사랑에 기대감을 갖고 종교, 국적, 인종을 불문하고 도움을 줄 곳이라는 절실함으로 찾는 것이지요. 이 분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일 또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제 104차 세계 이민의 날 담화를 통해,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모든 시대의 환영받는 이방인이건 거부되는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십니다(마태 25,35-43 참조). 주님께서 더 나은 미래를 찾아 고국을 떠나야만 하는 모든 이를 교회의 모성애에 맡기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쟁과 박해, 자연재해와 빈곤을 피해 자신의 고국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에 대해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마음을 열게 되고 함께 아파할 줄 알며, 인간의 고통 앞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영적 감수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주민 한 분 한 분 그 뒤에는 영적, 물적으로 저희 이주사목위원회를 도와주시는 고마우신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정성이 함께 한다는 것 또한 두드리는 문을 기꺼이 여는 그리스도의 작은 기적임을 늘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40)

공동체 소식

공지사항 소식지 발송 변경 사항*

그동안 저희 이주사목위원회는 소식지 '좋은이웃'을 통해, 매일 씬터와 국가별 공동체 소식 등 이주민 사목의 전반적인 활동을 전해 드렸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보다 잘 선용하기 위해(소식지 발행 비용과 우편비 절감),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으로 2021년부터 소식지와 지로의 발행주기를 격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발송되는 달은 1, 3, 5, 7, 9, 11월이 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상황에 불편함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후원회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무국으로(02-924-9970/1)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주노동자 상담실 소식*

지난 10월 30일 서울성모병원 성모자선회와 사회사업팀이 이주사목위원회를 방문하시어 12,000,000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성모자선회의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6개국 12명 이주민들의 의료비, 생계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병원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중한 기금을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성모자선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생계비/가정간호비용 지원, 의료봉사 후원,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공헌 등의 가톨릭 영성구현사업을 수행하는 모금단체

국가별 공동체 미사 소식*

코로나19 감염 예방위해 이주사목위원회의 국가별 공동체 미사시간 등이 일시적으로 변동되어 봉헌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동체는 기존 목요일미사(오후 8시반), 토요일 저녁미사(오후 7시), 주일 오후 12시 미사 이외에 오후 1시 30분 미사가 신설되었습니다.

필리핀 공동체는 기존 헤화동성당에서 봉헌되는 일요일 오후 1시반 미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필리핀 센터의 토요일 미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미사와 성시간을 영어, 타갈로그와 세부아노 Cebuano어 등 3개어로 인터넷 생방송live-streaming 공동체미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별 공동체들도 상황에 맞추어 취소되거나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음악활동- 레인보우놀이터〉



〈이주 오랜만의 나들이〉

도요안 신부님을 알고 계시나요?

도요안 신부 신종 10주기 추모



1968년부터 한국에서 살며 2010년 11월 22일 선종하기까지, 노동자와 이주민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살레시오 수도회 소속 미국인 사제 (John TRISOLINI). 1971년 김수환 추기경께서 열악한 노동자 현실을 걱정

하며 도시산업사목연구회(노동사목위원회 전신)를 설립하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노동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도요안 신부님은 그 중심에서 약자들의 권리가 지켜지고 복음이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애썼다. 노동자와 이주민의 인간 존엄 문제와 과감히 맞섰던 사제 도요안의 선종 10주기를 앞두고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와 이주사목위원회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현재 우리 교회의 시대적 소명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주사목 활동 전개

급속한 경제발전, 88올림픽 이후 높아진 국제적 위상, 노동자들의 3D업종 기피 현상 등은 1990년대에 이주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을 초래하였다. 1990년 이래 폭주하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여성의 문제에 대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서울대교구는 종전의 산발적 지원과 사목활동을 정비하여 1992년에 이주노동자 상담실을 개설하고 도요안 신부님은 지도신부를 맡아 이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셨다.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의 제·개정을 포함한 각종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상담 활동과 병행하여 법률구조, 각종 문화사업과 행사를 통해 이주자들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그들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셨다.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탈바꿈한 한국 교회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고통받는 결혼이민여성과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물질적·정신적 지원을 기울여 건강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



가톨릭교회는 한국의 노동 현실을 직시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함께 노력하여 왔다. 이 많은 활동에 많은 신부님과 위원회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도요안 신부님은 이 모든 활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다. 도 신부님은 2010년 11월 22일 선종하실 때까지 이 땅의 노동자들, 이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앞장서서 이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애써 오셨다. 도 신부님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피난처와 방패 역할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셨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부조리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명이다. 이주사목위원회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앞으로도 실천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발췌: 가톨릭신문 11월 15일자 지면 특집기고